[보도자료] 보도 요청

발 신: 제20회 2015 ISU World Congress 사무국(문의: 권순철 팀장 / Tel: 02-912-6683)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귀중

2015 ISU World Congress

9월 5일(토) ~ 11일(금) [부산 영화의전당 & 해운대센텀호텔]

- 세계 유일의 입체영상연맹 ISU

- 아시아 최초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5일부터 일주일동안 열려

전 세계 스테레오그래픽 회원들의 대회인 ISU 총회가 9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된다. ISU(International Stereoscopic Union)는 1975년에 조직되어 45개국의 2000여 회원사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 입체영상연맹이다. 총회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입체사진과 비디오, 홀로그래피, 가상현실(VR) 등 스테레오 입체영상작품들을 감상하며 관련 최신기술을 상호교류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면서 서로 친목을 나누는 세계적 규모의 입체영상축제이다.

총회는 매 2년마다 나라를 바꿔가며 열리는데 40여년의 역사동안 아시아에서 열리기는 이번 부산 총회가 처음이다. 올해 20회 째인 이번 총회에는 회원과 입체영상관련 산업관계자들, 제작자를 포함 해외 30여개국의 300여명, 국내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ISU 총회는 일주일 동안 영화의 도시 부산을 입체영상으로 가득 채워 부산이 기존의 영화제를 넘어 세계적인 입체영상축제의 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총회의 부대행사로 3D한국국제영화제, ISU 3D 프로젝트, 실감영상 워크샵, 테이블 트레이드, 개/폐막식, 문화행사, 투어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3D한국국제영화제는 본 ISU 총회 내의 가장 큰 부대행사 중 하나이다. 국내를 포함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출품된 작품들 중에서 엄선된 8개국 작품 42편이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9월 5일, 6일 이틀 동안 세션별로 나누어 상영된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코미디, 판타지 등 장르도 다양해 일반인들이 3D 영화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에는 장/단편 대상과 우수상, 기술상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며 시상식은 9월 7일 저녁 7시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ISU개막식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부산총회의 대회장인 광운대학교 이승현 교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ISU 총회는 전 세계 유관기관의 관계자, ISU운영이사회, 국내외 회원과 3D 영상, 실감영상관련 산업계, 기술관계자 및 제작자들이 함께 해 입체/실감영상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일반 시민들도 3D 영화제와 3D 프로젝트 상영을 통해 입체/실감영상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에 부산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참여를 당부하였다.

제20회 2015 ISU World Congress 사무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8길 23 삼능스페이스향 3층 313호

Tel. 02-912-6683

Fax. 02-910-8932

E-mail ksc0226@gmail.com

www.3dkiss.org